선거

“‘Klass Up’ 대학생활의 Class를 높이겠다”

국제캠 총학 후보 ‘Klass Up’ 선본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Klass Up 선본은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장동석(국제학 2006) 정후보와 배기민(건축학 2007) 부후보가 출마했다.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동석 정후보(정)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책임감이 들었다. 더불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새내기, 저학년 친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래서 입후보를 결심했다.”

배기민 부후보(부) “학생회 경험을 2번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학생회와 학생과의 거리감이다.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는 만큼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두 번째는 진로와 취업고민에 빠진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의 대학생활만큼은 적자생존에서 구하고 싶었다.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학생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고 싶었다.”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정 “Klass Up의 의미는 두 가지다. 우선 대학사회에서 우리학교의 역할은 단지 대학생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대학생의 역할을 그 이상의 위치에 올리자는 의미가 첫 번째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 미래 발전적 요소들과 함께 삶의 질을 ‘업’해주고 싶다는 의미가 두 번째다.”

-공약 중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 “‘대학생활 클라스 업’은 공약 중 핵심이다. 학생들이 생활문제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학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단순 학사시스템에만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따라서 총장배 공모전이나, 전공연계프로젝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약을 구성했다.”

-수강신청 실패자를 구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어떤 식으로 현실화 할 계획인가?

정 “수강신청은 늘 치열하다. 그러나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구제받는 길은 번잡하다.예를 들어 수강신청에 실패했을 경우, 직접 발로 뛰어서 그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야 한다. 현재 학교에는 희망과목담기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만큼,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수요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학생과 강의를 보다 수월하게 연결지어 주고 싶다.”

-진로관련 공약들이 많이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진로탐색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 “취업진로처(취진처)에서는 ‘학생들이 안 온다’고 말한다. 반면 학생들은 ‘취진처에 내가 원하는 정보다 없다’고 이야기한다. 취진처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 사이의 차이를 충족시켜줄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의 취진처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학번 위주다. 저학년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설적인 진로 고민을 도와야한다. 단순히 취진처의 사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현재 학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정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대개 둘로 나뉜다. 소폭인상 혹은 동결. 등록금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이 실제로 학생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결국 등록금 책정은 인상과 동결 모두 고민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학생들과의 등록금 논의테이블을 거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타협점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재정과 관련해 가장 우선해야할 고민은 학교 수입원에 대한 감사와 감시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할 시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의 요지는 인상이 학생들과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질 때, 사회의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책정된 등록금 과정이 있다면 국가장학금 2유형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총학생회 운영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평가해 달라.

정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소통의 접점이 없었고, 일부 인원의 업무과중이 심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소통의 부족은 학생회를 ‘학생회를 위한 학생회’에 머물게 했다.”

-4년 만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된다.

정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된 점은 반갑다. 기존의 경선에서 발생해왔던 네거티브는 없어야 한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면 좋겠다.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부 “유권자의 입장에서 경선은 좋은 공약이 나오고, 활동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학생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열심히 임하겠다.”

좌 - 배기민 (건축학 2007) 부후보
우 - 장동석 (국제학 2006) 정후보

〈Klass up 주요 공약〉

공약	내용
수강신청 개선	전필, 교필 수강신청 실패 구제, 희망과목담기 피드백
취업 프로그램 전공별 운영	분야별 특성화
대학생활 클라스 업	총장배 공모전, 전공연계프로젝트
줄어든 교양수업 작년수준이상 복원	후마니타스 전문교수 채용
대외활동 정보 알리기	정보, 참여후기 관리/ 기업, 지자체 주관 외부 프로그램 연계

“선본 이름처럼 친구같은 학생회가 될 것”

국제캠 총학 후보 ‘친 KHU’ 선본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친 KHU’ 선본은 ‘친구같은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김용석(화학공학 2009) 정후보와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후보가 출마했다.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석 정후보(정) -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받았던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학생회장이 가능할 것 같아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서영 부후보(부) - “‘학생들이 사랑하는 경희대’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정 “연합선본에 모인 친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친구 같은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선본명을 친 KHU(친구)로 정했다.”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정 “한국대학생연합 탈퇴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한다는 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교 학생회가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2·3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학생회를 통한 정치참여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생각만 있다면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다른 창구도 많이 늘었다. 때문에 대학교 학생회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무조건 ‘탈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고자 한다.”

부 “‘총학생회 공간개방’을 중점으로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생회관에 가보면 총학생회실 외의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하다. 우리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로서 일은 하지만 그런 공간을 독점적으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공간을 용도변경이나 크기조절을 통해 남학생휴게실이나 스터디 룸, 기타 자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수강신청개선을 공약으로 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부 “희망과목담기제도를 통해 학교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인원을 파악해 수업수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희망과목담기 제도를 통해 이러한 학교-학생간의 피드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무조건 한 과목에 여러 개를 클릭해 놓는 경우가 많다’며 희망과목 담기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어 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학교와 학생사이의 의견을 절충해 희망과목담기를 보완하겠다. 이를 통해 수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다.”

-등록금 동결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정 “등록금 동결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이 국가장학 2유형을 수혜받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따라서 등록금을 동결시킬 때 국가장학금 수혜 등을 통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동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학교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부 “입학식과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허례허식을 차리고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에 쓰이는 비용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 “학교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기 보다는 학교 내실을 강화하는 투자를 한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해 확대가 기대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정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아 답변이 어렵다.”

부 “만약 불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임 총학생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 “올해는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회가 한 활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 “작년에 휴학해 총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 한해 학생회가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학생도 있었고 행동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복학했기 때문에 더 말할 의견이 없다.”

-4년 만에 이뤄진 경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정 “이번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이 매우 행복하다.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지난 4년간의 선거가 단선으로만 치러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는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게 됐고, 이번 경선을 계기로 자극받아 더욱 더 열심히 임하겠다.”

좌 - 김용석 (화학공학 2009) 정후보
우 - 이서영 (식품생명공학 2012) 부후보

〈친KHU 주요 공약〉

공약	내용
수강신청 개선	수강희망과목담기의 보완 피드백
등록금 동결	국가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
한대련 총투표	한대련 탈퇴에 대한 총투표
생활방 및 총학생회 공간개방	총학생회 자치공간을 모두의 공간으로 전환
공간(SPACE 21) 확보	1차 마스터 플랜 빠른 진행